

비뚤어진 선정주의적 대중문화

공공성 외면한 '흥미제일주의'의 대중오락지

具賢書

한국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회 심의부장

사회문화의 대중화현상에 따라 잡지문화 권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잡지는 88년 한해 동안 1천여종이 증가, 무려 3천여 종에 이룸으로써 세계적인 잡지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 잡지 중 대중오락성을 표방하고 있는 잡지는 40여종에 이르는데, 언론자유화 이후 창간 또는 복간된 것이 31종이나 된다. 유형별로 보면 영화·연예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잡지와, 사회저변의 잡다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뒷얘기들을 흥미있게 다루면서 외국 여인들의 나체사진을 곁들이는 잡지들이 대부분이다.

연예계 화제, 폭로물이 주류

대중사회의 속성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쉽고 흥미있는 오락적인 내용이나 폭로성 기사 또는 시각적·감각적 욕구의 충족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중오락잡지들은 그들의 취향에 따른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오락지의 내용은 그 시대의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대중적 의식과 생활습속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잡지는 독자 대상이 다양하여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보고 넘길 수 있어서,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측면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중지의 순기능적인 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대중지의 문제는 그것이 본래의 대중오락지적 성격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의 「플레이보이」나 「펜

트하우스」 같은 옐로 페이지는 처음부터 포르노지를 표방하면서 미국사회의 개방적인 풍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례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청소년에게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는 사회적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잡지가 독자에 의해 선택되고 읽히는, 수요에 의한 창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내용이라도 독자가 요구하면 실어도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잡지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문화성 상품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잡지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들이 편집·제작한 잡지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실는가에 앞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실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대중오락지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인 편집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창조적인 의식에 앞서 지나친 상업성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잡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업성이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상업성만 유지한다면 상도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과당경쟁에 의한 자연도태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탈피해야 할 '벗기기'경쟁

주간지의 저질성이 한창 문제가 되고 있을 때, 벗기지 않는 주간지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 발행한 고급주간지가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일부 대중오락지들의 벗기기 경쟁은 이제 에로티시즘에서 포르노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윤리도덕관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8년 한해 동안 도서잡지주간신문 윤리위원회가 '윤리성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한 것을 보면, 총 591건 중 93%에 해당하는 549건이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보면 남녀간의 정사장면 등을 담은 영화스틸 또는 여체의 관능적인 사진계제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외설성 만화 156건, 저속성 기사 64건이었다.

월간지만의 경우, 87년에 97건이었던 것이 88년 들어 309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출판자유화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복간된 대중오락지들의 편집경향이 선정성을 보인 때문이다.

잡지가 교과서와 같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이 보는 앞에서 뽀뽀하게 펼쳐놓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참다운 대중문

화의 본질에 보다 접근하는 개성있는 잡지가 대중오락지에서도 나와야 한다.

우리가 찍은 사진도 아닌 외국의 포르노 사진에 페인트칠까지 해가며 실어야 하는 질 낮은 풍토에서 탈피하여 우리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노력이 아쉽다. 유흥가 여인들의 퇴폐행위를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흥미기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그들의 삶의 이면을 조명하여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만한 내용도 생각해볼직하다.

연예가의 건전한 화제와 불만한 영화의 해설,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상식,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담긴 대중오락지를 만들어볼직도 하다.

대중오락지가 본래의 성격을 떠나 선정주의적 경향에 치우치는 한 사회의 지탄을 벗어나기란 어렵다. 대중지의 건전화화를 위해서는 그 내용상의 진실과 기사의 정확성, 정돈되지 않은 편집형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현단계에서는 퇴폐적인 '외설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통무술 전문지 東洋武藝

THE ULTIMATE IN ORIENTAL MARTIAL ARTS

기공(내공), 태권도, 유도, 태극권, 소림권, 합기도, 공수도 등 동양무술의 자료를 발굴, 정리하여 무술적 원리를 소개함으로써 무술인의 무술지식과 수련기법 연마에 활용케 하여 기량향상에 기여코자 본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東洋武藝社 서울·종로구 종로 6가 213-1 (영안 B/D 405호) 전화: 763-1445, 742-7070